

# 런던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단 등 활동

### 4월 광주시립오페라단 '마술피리' 타미노 왕자 역 맡은 테너 김우경 마스터클래스 참여 노하우 전수

2004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독일 드레스덴 젤퍼 오페라극장·뮌헨 국립극장·런던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역가수, 오페라 '파우스트', '돈 조반니', '라트라비아타' 주역...

테너 김우경(45·한양대 교수)의 이력은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화려하다. 특히 그는 2004년 전속가수였던 독일 드레스덴 오페라극장에서 '마술피리'에 처음 출연한 이후 100 여회가 넘게 다양한 버전 속 타미노 왕자를 연기하면서 타미노 왕자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그가 이번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4월14~1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타미노 왕자 역으로 광주 관객들을 만난다. '마술피리'는 모차르트 오페라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다. 타미노 왕자가 밤의 여왕이 준 마술피리의 도움으로 파미나 공주를 구해내는 동화 같은 이야기와 신비롭고 환상적인 배경 속에 흐르는 선율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은유 속 풍자 덕분에 사랑받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시립오페라단 마스터클래스 강사로 참여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김우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지방공연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광주와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김우경은 "광주성악공콜 심사를 하러 광주에 온 적이 있다"며 "외국으로 치면 거리상 먼 곳도 아닌데 인연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 관객들은 비행기, 기차 등을 타고 서울로 공연을 보러 오는데 이들의 감동해소를 위해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역성과 가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역성과 가들만 모여 작품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감독, 배우 등 외부에서 활동했던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오페라를 함께 선보이는 만큼 저도, 지역성악가분들도 서로 경험과 인생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4월14~16일)에서 타미노 왕자 역을 맡은 테너 김우경이 13일 마스터클래스에 강사로 참여했다.

그는 이번에 연기하는 타미노 왕자에 대해 "수도 없이 타미노 왕자 역할을 맡았지만 익숙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무대 세트, 의상, 연출 등 그에 따라 각각 다른 타미노 왕자가 만들어진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동화 속 친근한 타미노 왕자를 연기한 적도 있었고 어른들을 위한 작품 속에서는 양복을 입고 출연하기도 했죠. 특히 '마술피리'처럼 전세계적으로 많이 공연되는 작품을 선보일 때는 연출자가 새로운 시도도 하기도 해요. 성이나 물, 불 등 가사에 나오는 것들은 똑같은데 매번 다른 연출자, 스태프, 출연자들과 준비하니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밖이에요. 이게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이날 그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처음으로 진행한 마스터클래스에 강사로 참여해 6명의 참가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소리를 내는 기술적인 노하우 뿐 아니라 먼저 성악을 시작한 선배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래를 해야 하는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광주에도 좋은 성악가, 좋은 선생님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서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30~40분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배운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지역의 후배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고 싶었고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 출장합니다."

김우경은 오는 7월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베르디 오페라 '레퀴엠'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오페라 '마술피리'를 진행한다. 그는 노래로 관객들에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노래를 듣다 보면 '저사람 참 노래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뒤돌아서면 마음에 남는 게 없기도 하더라고요. 감동을 주는 사람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노래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관객분들에게 제 진심이, 감동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제1회 상상인작품상에 김은상 시인 '목련의 방'

제1회 상상인작품상에 김은상(사진) 시인의 '목련의 방'이 선정됐다. 상상인작품상(상금 300만원)은 문예지 '상상인' 게재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고 시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상인 출판사가 제정했다. 이번 1회 심사는 2021년 창간호부터 2022년 제3호까지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심사는 이성혁 시인과 전해수 시인, 신상조 평론가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되는 가족 서사가 시의 배경이라면 신산한 삶의 비명과 울음이 전경화된 것이 '목련의 방'이다"며 "이러한 비극성은 한국인에게 꽤 보편적이며, 이 보편성이 지닌 공감의 힘이 존재의 슬픔을 승화시킨다"고 평했다.

김은상 시인은 2009년 '실천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유다복음', 소설 '빨강 모자를 쓴 아이들', '나의 아름다운 고양이 벨마'를 출간했다. 김은상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15년 전 결연을 맺었던 한 결혼가정의 이야기"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할머니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마음이 시로 남았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30일 서울 종로 강호갤러리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여성가족재단 '사람책을 만나다'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은 도민과 함께하는 '여성인문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를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해 주재였던 'एको페미니즘'을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며 오는 16일 시작해 11월까지 목포, 여수, 순천 등에서 진행한다.

첫 강연은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소 부소장의 '자본주의 소비와 환경'이다. 소란 전환마을은평 대표의 '나의 소비 습관 점검하기:전환마을은평 이야기', 하바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의 '기후정의X젠더정의:복합차별을 겪는 여성과 기후위기', 박선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위원의 '코로나 시대 여성의 돌봄노동'이 이어진다. 체험활동으로는 '온가족 지구 플로깅:목포 평화광장 일대', '지구다시쓰기 실천활동 I :일일 에코플래너 되기' 등을 진행한다. 문의 061-260-7331.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송광사·선암사 풍경과 불교 철학 사유 시와 사진에 담다

### 석연경 시인 '시와 사진으로 만나는 순천 사찰기행-동근 거울' 펴내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는 조선시대 승유역불 정책,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여순사건 등의 고난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천년 고찰이다.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한국 승보종찰조계총림 송광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불교 철학의 사유를 시와 사진으로 담아낸 시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송수권시문학상 젊은시인상을 수상했던 석연경 시인이 펴낸 '시와 사진으로 만나는 순천 사찰 기행-동근 거울'(문학들)은 순천의 대표 사찰 송광사와 선암사를 시와 사진으로 보는 인문 여행 길잡이 책이다. 책은 전남 사찰 기행 시리즈 첫 번째 시집으로 발간됐다.

모두 62편 시와 사진 94컷으로 구성된 작품집은 송광사와 선암사 분찰과 암자를 비롯해 말사들을 모티브로 한다. 실제 풍경과 사진 아울러 시가 함께 수록돼 있어 다각도로 고찰의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다.

"송광사 대웅보전에 가보라/ 가지런히 신발 벗고/ 없는 마음 내리고/ 없는 괴로움도 버려라// 합장하고 무릎 꿇고 절하면/ 과거 연등불 현재 석가모니 미래 미륵불이/ 무아이며 무상이니 공이며 중도라/ 연기적 세계에 갈 곳 알려주네"(송광사 대웅보전 중에서)

시인은 대웅보전에 들기 위해서는 무심과 무욕을 강조한다. 아니 대웅보전에 들어서면 샅된 마음은 언제인가 쉽게 사르르 녹아 없어진다고 본다. 석가모니 미륵불 앞에서 무아와 무상이 되는 지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인은 불교철학의 핵심을 풍광과 연계해 시로 노래한다. 한편 석 시인은 2013년 '시와문화'에서 시로 2015년 '시와 세



송광사 국사전 내부 모습

계에서 평론으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시집 '독수리의 날들', '벽을 세우다', 평론집 '생태시학의 변주' 등을 펴냈으며 현재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 청년 공개모집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모집공고는 앞서 선정된 문화예술단체에 근무할 청년을 채용하는 공고다. 청년은 7개소 중 1개의 희망 근무단체를 선택해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 선정돼 4월 초부터 해당단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직접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 청년으로 선정될 경우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직무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직무 역량강화와 지역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